

#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업자아 및 사회자아의 영향요인 비교

오은진<sup>1</sup>, 성경미<sup>2\*</sup>

<sup>1</sup>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경상대학교 간호대학 & 건강과학연구원

##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nd Social self-concept between Multicultural and General children

Eun Jin Oh<sup>1</sup>, Kyung Mi Sun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International University

<sup>2</sup>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업자아와 사회자아의 영향요인을 비교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초등학생 4-6학년 다문화아동 285명과 일반아동 223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2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enter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학업자아, 사회자아, 부모애착,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낮았고, 정신건강 수준도 낮았다. 다문화아동의 학업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학습활동( $\beta=.298$ ), 사회적 부적응( $\beta=-.218$ ), 의사소통( $\beta=-.196$ ), 신뢰감( $\beta=.167$ ) 순으로 학업자아를 42.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친구지지( $\beta=.285$ ), 교우관계( $\beta=.187$ ), 사회적 부적응( $\beta=-.172$ ), 우울요인( $\beta=-.139$ ) 순으로 사회자아를 46.3%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학업자아와 사회자아의 영향요인들은 향후 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 증진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compare and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academic self-concept and social self-concept between multicultural children and general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285 multicultural children and 223 general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during three months from February 20, 2014 to May 20, 2014.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enter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23.0 program. Multicultural children showed lower scores in academic and social self-concept, parents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school life adaptation than general children. And their mental health level was lower than the general children. The study results were that academic self-concept of multicultural children was influenced by learning activity ( $\beta=.298$ ), social maladaptation ( $\beta=-.218$ ), communication ( $\beta=-.196$ ), and confidence ( $\beta=.167$ ), which explained for 42.4% of academic self-concept. Social self-concept of multicultural children was influenced by support from friend ( $\beta=.285$ ), peer relation( $\beta=.187$ ), social maladaptation ( $\beta=-.172$ ), and depression ( $\beta=-.139$ ), which explained for 46.3% of social self-concept. Since the influence factors of academic and social self-concept of general children and multicultural children have a great power of explanation, they can be used for the intervention program enhancing self-concept for school aged children.

**Keywords** : Child, Cultural diversity, Mental health, Object attachment, Self concept, Social support, Schools

### 1. 서론

우리사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다문화가정 혹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여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라는 고

#### 1.1 연구의 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Kyung Mi Sung(Gyeongsang National Univ.)

Tel: +82-55-772-8246 email: sung@gnu.ac.kr

Received October 15, 2015

Revised (1st October 28, 2015, 2nd November 18, 2015)

Accepted December 4, 2015

Published December 31, 2015

유성에서 벗어나 다문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추세를 살펴보면, 한국 남성이 한국계 중국인, 일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적의 아시아계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고, 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총 207,693명 중 만 6세 이하가 56.8%로 대다수였고 만 7세-12세 27%, 만 13-15세가 9%, 만 16-18세가 7.2% 순이었다[1]. 따라서 앞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은 점점 늘어날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중,고에 재학중인 다문화 학생들 중에서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은 일반 학생보다 높고, 상급학교로 진학 시 탈락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외모에 대한 친구들의 놀림이나 따돌림, 학습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고, 이중문화속에서 성장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으로 내적 갈등이 유발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내·외적 부정적인 환경들은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3].

학령기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친구나 교사와 관계를 형성하며 유아기보다 확장된 사회성 발달을 이루어가는 시기로 다양한 경험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는 성취동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자아개념이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로 개인의 적응방식, 성격발달 그리고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고, 환경에 능동적이고 현실과 잘 적응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성취감이 높은 반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며 열등감과 불확실감이 높아 목표설정이 낮거나 비현실적이다[4]. 이러한 자아개념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되어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아동기에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발달과제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 먼저, Kim & Choi[5]는 부모, 또래, 그리고 교사와의 통합애착유형에서 자아개념이 높고, 불안정 애착유형에서 자아개념이 낮다고 하였다. Lee & Park[6]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과 자아개념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다문화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7],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대부분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짧은 시간에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을 하게 되어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한국문화가 익숙하기도 전에 자녀를 낳아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고[8],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나 애착형성에 방해를 받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7,9]. Yang[10]의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이 좋은 경우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며, 정신건강이 나쁜 경우 자아개념의 부정적인 지각으로 문제해결이 어렵고, 불만족, 열등감 등을 경험하며 일부는 신경증이나 불안, 우울 등이 초래된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자아개념은 학교생활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또래관계가 원만할수록 자아개념이 높았고[6,11], 높은 사회적 지지는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6].

일반적으로 다문화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학습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친구관계의 어려움 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아의 기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다[3,12].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다문화아동의 학업자아와 사회자아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데 몇몇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개념을 비교한 연구에서 학교활동 참여와 관련된 학업자아나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험되어지는 사회자아가 일반아동보다 다문화아동이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2]. 학업자아는 미래의 자기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다문화 초등학생의 경우 일반 초등학생보다 자기진로 발달에 학업자아의 영향력이 컸으며[13], 학업자아의 수준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해 메타분석을 시도한 일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학습태도, 교사의 긍정적 행동 등이 아동의 사회자아나 학업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15].

자아개념에는 여러 측면들이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학령기 다문화아동의 학업자아와 사회자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였으며 특히, 일반아동과 비교한 연구는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아동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성장발달의 중요한 지

표가 되는 학령기 다문화아동의 학업자아와 사회자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일반아동과의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다문화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잠재적인 성장발달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다문화아동의 학업자아와 사회자아 증진을 통해 건강한 자아개념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발달중재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기초자료를 제공하리라 본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업자아와 사회자아의 영향요인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아동의 학업자아와 사회자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일반아동과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인 아버지와 혼인을 통한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G도 소재의 초등학교 4학년부 6학년까지의 다문화아동 285명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일반아동 2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power 0.95, 효과크기 0.15를 기준으로 최소 표본수가 184명인 것을 근거로 탈락율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 수를 정하였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 학업자아와 사회자아 각각 20문항, 정신건강 19문항, 사회적 지지 23문항, 학교생활적응 24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113 문항의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이다.

#### 2.3.1 학업자아(Academic self-concept)

학업자아는 아동이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 실제 성취에 따른 자신에 대한 평

가를 말한다[16]. 본 연구에서는 Sung[17]이 개발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가평가용 자아개념 척도 중 학업자아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점에서 3점까지의 3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자아 수준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Sung[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0이었다.

#### 2.3.2 사회자아(Social self-concept)

사회자아는 아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험되어지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16]. 본 연구에서는 Sung[17]이 개발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가평가용 자아개념 척도 중 사회자아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점에서 3점까지의 3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자아 수준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Sung[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0이었다.

#### 2.3.3 부모애착(Parental attachment)

애착이란 한 개인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18].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가 개발한 애착척도 개정판(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을 Ok[20]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결코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Ok[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모 애착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모 애착 .93이었다.

#### 2.3.4 정신건강(Mental health)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Shin[21]의 한국 일반정신건강척도(KGHQ: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GHQ-20)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불안요인, 우울요인, 사회부적응, 외출 빈도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며, 총 20문항의 4점 Likert형 척도이다. 이 도구는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경험의 정도를 측정하여 정신질환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채점방식은 'GHQ scoring'을

사용하였다[21]. ‘GHQ scoring’은 정신질환 위험군의 선별이나 정신건강 수준의 측정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응답항목에 대한 배점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0점,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는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응답에 혼돈을 경험한 외출 빈도 1문항을 제외하고 총 19문항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Shin[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7-.89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8이었다.

### 2.3.5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Kim[22]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총 2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형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은 .95이었다.

### 2.3.6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in[23]이 개발한 학교생활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학교행사에 대한 적응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총 2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형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Min[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은 .94이었다.

##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2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였으며, 연구자가 G지역의 중소도시에 소재한 다문화센터와 다문화가정 모임에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먼저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동의서를 받았고 각 가정에서 아동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연구자가 재방문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로부터 아동이 응답한 설문지와 부모님에게도 동의서를 함께 수거하였다. 일반아동도 다문화아동과 동일지역 2곳의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감선생님

의 연구 허락을 구한 뒤, 학생들에게 직접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개별 봉투에 설문 응답지와 부모의 동의서가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학교를 재방문 시 응답자의 설문지와 부모 동의서를 수거하였다. 총 544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응답에 불성실한 자료 36부를 제외한 총 508부(93.4%)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 2.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IRB 승인(GIRB-G14-Y-\*\*\*\*)을 받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아동과 부모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조사도중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응답결과는 오직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자료를 모두 소각함을 알리고 모든 대상자에게는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 2.6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자아와 사회자아의 차이는 t-test와 ANOVA검정을 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검정을 실시하였다. 학업자아, 사회자아, 부모애착, 정신건강,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으로 확인하였다.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업자아, 사회자아, 부모애착, 정신건강,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시행하고,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업자아, 사회자아에 대한 연구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Enter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다문화아동은 남자가 50.5%, 여자는 49.5%로 나타났다. 일반아동은 남자가 54.3%, 여자는 45.7%로

남자가 약간씩 많았다. 가족형태는 다문화아동의 경우 핵가족이 80.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일반아동에서도 핵가족이 85.7%이었다. 따돌림 경험은 다문화아동은 조금 있음이 5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거의 없음 45.6%, 많음 2.1% 순이었다. 일반아동은 한 번도 없음이 6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거의 없음

22.0%이었다. 자살생각은 다문화아동은 한 번도 없음이 70.2%로 가장 많았고 일반아동은 한 번도 없음이 73.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하루 인터넷, 핸드폰게임 시간은 다문화아동의 경우 1.56시간(±1.44)이었고, 일반아동은 1.48시간(±1.71)으로 다문화아동이 약간 더 높았다. 주 대화상대는 다문화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60.7%로 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lf-concept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general children (N=508)

Variable	Categories	Multicultural(n=285)				General(n=223)			
		n	%	Academic self-concept	Social self-concept	n	%	Academic self-concept	Social self-concept
				M±SD	M±SD			M±SD	M±SD
Gender	Male	144	50.5	2.21±0.35	2.44±0.34	121	54.3	2.34±0.34	2.47±0.37
	Female	141	49.5	2.28±0.34	2.45±0.33	102	45.7	2.36±0.32	2.56±0.30
	t(p)			-1.655(.099)	-3.326(.745)			-.391(.696)	-1.869(.063)
Family forms	Nuclear family	228	80.0	2.23±0.34	2.42±0.33	191	85.7	2.36±0.32	2.51±0.34
	Extended family	57	20.0	2.33±0.35	2.54±0.33	32	14.3	2.29±0.36	2.51±0.34
	t(p)			-1.995(.047)	-2.329(.021)			1.185(.237)	0.038(.970)
Bullying experiences	Plenty	6	2.1	1.75±0.49 <sup>b</sup>	1.87±0.37 <sup>c</sup>	0	0.0	-	-
	A little	149	52.3	2.15±0.35 <sup>a</sup>	2.34±0.33 <sup>b</sup>	29	13.0	2.18±0.3 <sup>b</sup>	2.21±0.37 <sup>c</sup>
	Almost none	130	45.6	2.38±0.26 <sup>a</sup>	2.6±0.25 <sup>a</sup>	49	22.0	2.3±0.31 <sup>ab</sup>	2.43±0.3 <sup>b</sup>
	Not even once	0	0.0	-	-	145	65.0	2.4±0.33 <sup>a</sup>	2.6±0.31 <sup>a</sup>
	F(p)			26.498(<.001)	38.529(<.001)			6.477(.002)	21.453(<.001)
Suicidal thoughts	Plenty	4	1.4	2.03±0.43 <sup>b</sup>	1.98±0.55 <sup>b</sup>	6	2.7	2.13±0.46 <sup>b</sup>	2.23±0.38 <sup>b</sup>
	A little	21	7.4	1.94±0.31 <sup>ab</sup>	2.13±0.37 <sup>b</sup>	28	12.6	2.10±0.30 <sup>ab</sup>	2.25±0.43 <sup>b</sup>
	Almost none	60	21.0	2.09±0.39 <sup>ab</sup>	2.30±0.33 <sup>ab</sup>	26	11.7	2.25±0.35 <sup>ab</sup>	2.37±0.34 <sup>ab</sup>
	Not even once	200	70.2	2.33±0.30 <sup>a</sup>	2.53±0.28 <sup>a</sup>	163	73.0	2.41±0.30 <sup>a</sup>	2.59±0.28 <sup>a</sup>
	F(p)			16.565(<.001)	20.299(<.001)			10.323(<.001)	13.376(<.001)
Internet, Cell phone game time	Not even once	21	7.4	2.43±0.32 <sup>a</sup>	2.63±0.25 <sup>a</sup>	32	14.3	2.47±0.35 <sup>a</sup>	2.56±0.31
	<1hr	58	20.4	2.27±0.32 <sup>ab</sup>	2.50±0.26 <sup>ab</sup>	59	26.5	2.45±0.28 <sup>a</sup>	2.59±0.30
	1~3hr	170	59.6	2.23±0.35 <sup>ab</sup>	2.43±0.33 <sup>ab</sup>	101	45.3	2.30±0.31 <sup>ab</sup>	2.47±0.34
	>3hr	36	12.6	2.16±0.36 <sup>b</sup>	2.35±0.44 <sup>b</sup>	31	13.9	2.19±0.36 <sup>b</sup>	2.46±0.41
	F(p)			M±SD(1.56±1.44) 2.900(.035)	3.980(.008)			M±SD(1.48±1.71) 6.909(<.001)	1.957(.121)
Main contact	Father	20	7.0	2.03±0.44 <sup>bc</sup>	2.28±0.40	14	6.3	2.23±0.23 <sup>ab</sup>	2.35±0.38 <sup>ab</sup>
	Mother	173	60.7	2.25±0.34 <sup>ab</sup>	2.44±0.33	96	43.0	2.30±0.34 <sup>ab</sup>	2.47±0.33 <sup>ab</sup>
	Both parents	82	28.8	2.33±0.29 <sup>a</sup>	2.53±0.28	103	46.2	2.44±0.29 <sup>a</sup>	2.61±0.30 <sup>a</sup>
	None	10	3.5	1.94±0.35 <sup>c</sup>	2.28±0.52	10	4.5	2.03±0.37 <sup>b</sup>	2.19±0.48 <sup>b</sup>
	F(p)			7.315(<.001)	4.782(.003)			7.509(<.001)	7.751(<.001)
Best friend number	<3	66	23.2	2.23±0.46	2.40±0.37 <sup>b</sup>	50	22.4	2.24±0.38 <sup>b</sup>	2.32±0.41 <sup>b</sup>
	3~5	110	38.6	2.23±0.33	2.42±0.33 <sup>b</sup>	80	35.9	2.37±0.28 <sup>ab</sup>	2.55±0.28 <sup>a</sup>
	6~10	59	20.7	2.25±0.24	2.45±0.29 <sup>ab</sup>	51	22.9	2.36±0.33 <sup>ab</sup>	2.55±0.31 <sup>a</sup>
	>10명	50	17.5	2.29±0.27	2.58±0.30 <sup>a</sup>	42	18.8	2.43±0.30 <sup>a</sup>	2.61±0.33 <sup>a</sup>
	F(p)			M±SD(7.60±10.94) 0.415(.743)	3.737(.012)			M±SD(8.96±14.65) 2.845(.039)	7.394(<.001)

a>b>c : scheffe

장 많았고, 부모 모두 28.8%, 아버지는 7%, 없음은 3.5% 순이었고, 일반아동의 경우 부모 모두 46.2%, 어머니 43.0%, 아버지 6.3% 순이었다. 친한 친구수는 다문화아동은 7.6명(±10.94)이었고, 일반아동은 8.96명(±14.65)으로 응답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아동의 학업자아의 차이는 가족형태( $t=-1.995, p=.047$ ), 따돌림 경험( $F=26.498, p<.001$ ), 자살생각( $F=16.565, p<.001$ ), 하루 인터넷, 핸드폰게임 시간( $F=2.900, p=.035$ ), 주 대화상대( $F=7.315, p<.001$ )이었다. 즉,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인 경우, 따돌림 경험이 조금 있거나 거의 있는 아동이 따돌림이 많음보다, 자살생각이 한 번도 없는 아동이 많음보다, 인터넷, 핸드폰 게임을 안하는 아동이 많이 한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주 대화상대가 부모 모두인 경우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학업자아가 높았다. 사회자아는 가족형태( $t=-2.329, p=.021$ ), 따돌림 경험( $F=38.529, p<.001$ ), 자살생각( $F=20.299, p<.001$ ), 하루 인터넷, 핸드폰게임 시간( $F=3.980, p=.008$ ), 주 대화상대( $F=4.782, p=.003$ ), 친한 친구 수( $F=3.737, p=.012$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족형태에서 확대가족인 경우, 따돌림 경험에서 거의 없는 아동이 많음보다, 자살생각이 한 번도 없는 아동이 조금 있거나 많음보다, 인터넷, 핸드폰 게임 시간이 안하는 아동이 3시간 이상인 경우보다, 친한 친구 수는 11명 이상이 3~5명이거나, 2명 이하인 경

우보다 사회자아가 유의하게 높았다. 주 대화 상대가 부모 모두인 경우 가장 사회자아 점수가 높았지만, 사후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아동의 학업자아 차이는 따돌림 경험( $F=6.477, p=.002$ ), 자살생각( $F=10.323, p<.001$ ), 하루 인터넷, 핸드폰게임 시간( $F=6.909, p<.001$ ), 주 대화상대( $F=7.509, p<.001$ ), 친한 친구수( $F=2.845, p=.039$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따돌림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아동이 조금 있는 아동보다, 자살생각은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인터넷 핸드폰 게임시간이 안함이나 1시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3시간 이상보다, 주 대화 상대가 부모 모두인 아동이 없다고 응답한 아동보다, 친한 친구 수가 11명 이상인 아동이 2명 이하라고 응답한 아동보다 학업자아가 높았다. 사회자아는 따돌림 경험( $F=21.453, p<.001$ ), 자살생각( $F=13.376, p<.001$ ), 주 대화상대( $F=7.751, p<.001$ ), 친한 친구 수( $F=7.394, p<.001$ )이었다. 즉, 따돌림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아동이 조금 있음보다, 자살생각이 한 번도 없는 아동이 조금 있음과 많음보다, 주 대화상대가 부모 모두가 없음보다, 친한 친구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2명 이하보다 사회자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2. Mean of variables for the subjects

(N=508)

Variables	Categories	Multicultural(n=285)	General(n=223)	t	p
		M±SD	M±SD		
Self-Concept	Academic self-concept	2.25±0.35	2.35±0.33	3.348	.001
	Social self-concept	2.45±0.33	2.51±0.34	2.184	.029
	Total	3.86±0.55	4.26±0.65	7.210	<.001
Parental attachment	Credibility	3.99±0.59	4.45±0.69	8.153	<.001
	Communication	3.73±0.64	4.13±0.79	6.127	<.001
	Alienated	3.86±0.75	4.13±0.60	4.556	<.001
	Total	4.02±3.85	0.75±1.99	-12.379	<.001
Mental health	Anxiety factor	1.15±1.14	0.22±0.58	-12.006	<.001
	Depression factors	1.19±1.12	0.22±0.60	-12.421	<.001
	Social maladjustment	1.68±2.16	0.31±1.12	-9.253	<.001
	Total	3.96±0.57	4.28±0.74	5.344	<.001
Social support	Friend support	3.89±0.66	4.31±0.83	6.200	<.001
	Family support	4.21±0.70	4.50±0.82	4.261	<.001
	Teacher support	3.74±0.70	4.01±0.95	3.562	<.001
	Total	2.97±0.39	3.24±0.53	6.328	<.001
School adjustment	Homeroom teacher	3.10±0.58	3.26±0.72	2.800	.005
	Companionship	3.00±0.43	3.34±0.54	7.870	<.001
	Learning activities	2.80±0.52	3.14±0.66	6.550	<.001
	Compliance	3.06±0.46	3.33±0.58	5.741	<.001
	School events	2.87±0.49	3.12±0.66	4.819	<.001

### 3.2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업자아, 사회자아, 부모애착,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업자아, 사회자아와 관련된인들의 정도 및 차이는 Table 2와 같다. 학업자아의 평균값은 문항평점 3점 만점에 다문화아동 2.25점(±0.35), 일반아동 2.35점(±0.33)으로 일반아동에서 학업자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348, p=.001$ ). 또한, 사회자아의 평균값은 다문화아동 2.45점(±0.33), 일반아동 2.51점(±0.34)으로 일반아동의 사회자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184, p=.029$ ).

부모애착은 문항평점 5점 만점에 다문화아동은 3.86점(±0.55)이었고, 일반아동은 4.26점(±0.65)으로 일반아동의 부모애착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7.210, p<.001$ ). 정신건강은 총점 19점 만점에 다문화아동은 4.02점(±3.85), 일반아동은 0.75점(±1.99)으로 다문화아동의 정신건강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12.379, p<.001$ ). 사회적 지지는 문항평점 5점 만점에 다문화아동은 3.96점(±0.57)이었고, 일반아동의 경우 4.28점(±0.74)으로 일반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5.344, p<.001$ ). 학교생활적응은 문항평점 4점 만점에 다문화아동은 2.97점(±0.39), 일반아동은 3.24점(±0.53)으로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6.328, p<.001$ ).

### 3.3 학업자아, 사회자아, 부모애착,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다문화아동의 학업자아는 사회자아( $r=.659, p<.01$ ), 부모애착( $r=.345, p<.01$ ), 사회적지지( $r=.512, p<.01$ ), 학교생활적응( $r=.509, p<.01$ )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고, 정신건강( $r=-.479, p<.01$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다문화아동의 사회자아는 부모애착( $r=.433, p<.01$ ), 사회적 지지( $r=.599, p<.01$ ), 학교생활적응( $r=.459, p<.01$ )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고, 정신건강( $r=-.557, p<.01$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일반아동의 학업자아는 사회자아( $r=.710, p<.01$ ), 부모애착( $r=.511, p<.01$ ), 사회적 지지( $r=.643, p<.01$ ), 학교생활적응( $r=.641, p<.01$ )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고, 정신건강( $r=-.349, p<.01$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일반아동의 사회자아는 부모애착( $r=.505, p<.01$ ), 사회적 지지( $r=.706, p<.01$ ), 학교생활적응( $r=.573, p<.01$ )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고, 정신건강( $r=-.457, p<.01$ )과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업자아, 사회자아개념과 연구변수와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 3.4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업자아, 사회자아 영향요인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업자아 및 사회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검토를 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Durbin-Watson 지수가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이었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분산팽창요인) 지수를 이용하였고, VIF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ariables	Academic self-concept	Social self-concept	Parental attachment	Mental health	Social support	School adjustment
Multicultural children	Academic self-concept	1					
	Social self-concept	.659**	1				
	Parental attachment	.345**	.433**	1			
	Mental health	-.479**	-.557**	-.547**	1		
	Social support	.512**	.599**	.642**	-.531**	1	
	School adjustment	.509**	.459**	.439**	-.411**	.657**	1
	Academic self-concept	1					
General children	Social self-concept	.710**	1				
	Parental attachment	.511**	.505**	1			
	Mental health	-.349**	-.457**	-.413**	1		
	Social support	.643**	.706**	.711**	-.458**	1	
	School adjustment	.641**	.573**	.547**	-.282**	.720**	1

\*\* :  $p <.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self-concept and social self-concept to multicultural children and general children

Variables	Academic self-concept								Social self-concept								
	Multicultural(n=285)				General(n=223)				Multicultural(n=285)				General(n=223)				
	B	SE	$\beta$	t(p)	B	SE	$\beta$	t(p)	B	SE	$\beta$	t(p)	B	SE	$\beta$	t(p)	
Parental attachment	Credibility	.1243	.194	-	6.415(<.001)	1.066	.142	-	7.489(<.001)	1.420	.176	-	8.066(<.001)	1.068	.131	-	7.702(<.001)
	Communication	-.106	.042	-.19	(-2.499(.013))	.028	.039	.068	.721(.472)	.012	.039	.023	.313(.754)	.001	.031	.000	.039(.969)
	Alienated	-.017	.027	-.037	(-6.26(.532))	-.090	.037	-.165	(-2.421(.016))	.022	.025	.049	.883(.754)	-.020	.031	-.03	(-5.44(.587))
Mental health	Anxiety factor	-.001	.021	-.004	(-0.56(.956))	.031	.039	.054	.797(.426)	-.004	.019	-.013	(-2.08(.035))	-.078	.031	-.13	(-2.071(.040))
	Depression factors	-.026	.020	-.08	(-1.308(.192))	.035	.035	.063	1.001(.318)	-.042	.018	-.139	(-2.322(.021))	.048	.031	.08	1.410(.160)
Social maladjustment		-.035	.011	-.21	(-3.040(.003))	-.055	.019	-.187	(-2.861(.005))	-.027	.010	-.172	(-2.543(.021))	-.029	.011	-.09	(-1.555(.121))
Social support	Friend support	.060	.037	.114	1.602(.110)	.111	.030	.278	3.635(<.001)	.144	.034	.285	4.250(<.001)	.243	.031	.58	8.177(<.001)
	Family support	.036	.033	.073	1.088(.278)	-.039	.032	-.096	(-1.207(.229))	.035	.030	.074	1.170(.243)	-.018	.03	-.04	(-5.70(.569))
	Teacher support	.029	.036	.060	.814(.417)	.040	.027	.117	1.468(.144)	.033	.033	.069	1.000(.243)	-.011	.02	-.03	(-4.12(.681))
School adjustment	Homeroom teacher	.035	.042	.059	.841(.401)	-.066	.034	-.144	(-1.950(.052))	.048	.038	.083	1.259(.209)	.009	.031	.021	.285(.776)
	Companionship	.007	.060	.009	.122(.903)	.028	.049	.046	.570(.569)	.144	.054	.187	2.645(.009)	.157	.041	.24	3.285(.001)
	Learning activities	.200	.042	.298	4.727(<.001)	.236	.040	.475	5.932(<.001)	-.011	.038	-.017	(-2.89(.773))	.036	.031	.071	.926(.001)
	Compliance	-.017	.053	-.02	(-3.21(.748))	-.034	.047	-.059	(-0.722(.471))	-.078	.048	-.108	(-1.613(.108))	-.041	.041	-.06	(-0.904(.367))
	School events	.011	.048	.016	.240(.811)	.036	.033	.072	1.108(.269)	.015	.043	.022	.338(.735)	-.011	.031	-.02	(-3.46(.729))
R <sup>2</sup>		.422				.606				.463				.653			
F(p)		14.099(<.001)				22.597(<.001)				18.470(<.001)				27.697(<.001)			

지수는 1.621 ~ 4.937 로 모두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업자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아동에서는 신뢰감( $p=.045$ ), 의사소통( $p=.013$ ), 사회적부적응( $p=.003$ ), 학습활동( $p<.001$ )이 학업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활동( $\beta=.298$ ), 사회적부적응( $\beta=-.218$ ), 의사소통( $\beta=-.196$ ), 신뢰감( $\beta=.167$ ) 순으로 학업자아를 42.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에서는 신뢰감( $p=.030$ ), 소외( $p=.016$ ), 사회적부적응( $p=.005$ ), 친구지지( $p<.001$ ), 학습활동( $p<.001$ )이 학업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학습활동( $\beta=.475$ ), 친구지지( $\beta=.278$ ), 신뢰감( $\beta=.212$ ), 사회적부적응( $\beta=-.187$ ), 소외( $\beta=-.165$ ) 순으로 학업자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자아를 60.6% 설명하였다. 사회자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을 때는 다문화아동의 경우, 우울요인( $p=.021$ ), 사회적부적응( $p=.021$ ), 친구지지( $p<.000$ ), 교우관계( $p=.009$ )가 사회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 $\beta=.285$ ), 교우관계( $\beta=.187$ ), 사회적부적응( $\beta=-.172$ ), 우울요인( $\beta=-.139$ ) 순으로 사회자아를 46.3% 설명하였다. 일반아동의 경우, 불안요인( $p=.040$ ), 친구지지( $p<.000$ ), 교우관계( $p=.001$ ), 규칙준수( $p=.001$ )가 사회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친구지지( $\beta=.588$ ), 교우관계( $\beta=.246$ ), 불안요인( $\beta=-.131$ ), 학습활동( $\beta=.070$ ) 순으로 사회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자아를 65.3% 설명하였다(Table 4).

#### 4.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아동의 학업자아와 사회자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일반아동과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애착, 정신건강,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이 학령기 아동의 학업자아와 사회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다문화아동의 가족형태, 따돌림 경험, 자살생각, 인터넷, 핸드폰 게임시간, 주 대화상대는 학업자아와 사회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그 밖에 친한 친구 수는 사회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은 따돌림 경험, 자살생각, 주 대화상대, 친한 친구 수는 학업자아와 사회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인터넷, 핸드폰 게임시간은 학업자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따돌림 경험이나 자살생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다문화아동이 외모차이나 외국인 어머니로 인해 친구와의 부정적인 관계형성, 일반아동들의 다문화 인식부족 등으로 따돌림과 우울을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12]. 또한,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따돌림 경험이나 자살생각이 적은 경우나 주 대화상대가 부모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학업자아와 사회자아가 높았다. 이는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보고한 Nam & Lee[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다문화아동은 어머니와 주로 의사소통하는 반면 일반아동은 부모 모두와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다문화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친한 친구수가 많은 경우 다문화아동은 사회자아가 유의하게 높았고 일반아동은 학업자아와 사회자아 모두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또래와의 친밀함이 아동의 학업자아에 영향을 미친다는 Lee & Park[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그 외에도 다문화아동은 확대가족인 경우 학업자아와 사회자아가 높게 나타나 조부모의 양육도움이 다문화 아동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보호체계가 될 수 있음을 일부 시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자아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Sung, Ham & Lee[24]의 초등학생 학업자아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다문화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학업자아와 사회자아 모두 더 낮았다. 이는 일반아동이 다문화아동보다 자아개념 점수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10]. 본 연구변수인 부모애착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았으며[12, 25], 특히 다문화아동은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 점수가 가장 낮았고 이는 이들의 주 대화상대가 외국인 어머니였음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Lee & Kim[7]의 연구에서 다문화아동이 일반가정아동보다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다문화아동의 정신건강은 일반아동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았으며 Sung & Lee[26]의 일반 초등학생 정신건강 점수보다도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다문화아동 정신건강이 일반아동보다 나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아동보다 다문화아동의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한 Nam & Lee[1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Moon & An[27]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분노가 정신신체증상과의 관계에서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특히, 다문화아동과 부와의 애착관계가 분노가 정신신체증상을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와의 애착관계형성이 다문화아동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는 역시 다문화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았고 하위영역에서는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가족지지가 가장 높고, 교사지지가 가장 낮았다. 학교생활적응도 다문화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와같은 결과는 Lee &

Kim[7]의 결과와 유사했다. 본 연구대상자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An[9]의 농어촌 지역 거주 다문화 초등학생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아동은 학교생활적응 중 학습활동영역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습부진으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Park & Lee[28]의 연구결과 다문화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교사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지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은 모두 학업자아, 사회자아,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 및 학교생활적응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신건강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학업자아와 사회자아가 부모애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Nam & Lee[12]와 교사지지가 학업자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래와의 친밀감이 학업자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Lee & Park[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자아개념과 정신건강 간의 부적상관관계[9,12]나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정서 및 행동의 문제가 더 많았다고 보고한 Jeon[29]의 연구, 그리고 우울감과 학업수준 간에 부적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Park[30]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다문화아동의 학업자아와 사회자아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부모애착을 증진시키는 것 등이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Park[30]의 연구에서 우울감과 학업수준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본 연구의 다문화아동의 학업자아가 일반아동보다 낮았음을 고려해볼 때 학업수준이 낮은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우울의 예방이나 학업자아 증진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아동의 학업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습활동, 사회적 부적응, 의사소통, 그리고 신뢰감이 있었으며 학업자아를 42.2% 설명하였다. 일반아동에서는 학습활동, 친구지지, 신뢰감, 사회적 부적응, 소외가 학업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학업자아에 대한 설명력은 60.6%였다.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업자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습활동이었으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학령기 아동의 학업자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아동은 학교생활적응에서 학습활동 점수가 가장 낮았고 일반아동과 달리 의사소통이 학업자아에 영향을 미

치고 있었으므로 외국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결여가 언어 발달의 지연이나 학령기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3,12]. 본 연구결과 다문화아동의 학업자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어머니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감 형성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아동의 사회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친구지지, 교우관계, 사회적 부적응, 우울요인이 있었으며 사회자아를 46.3% 설명하였다. 일반아동의 경우는 친구지지, 교우관계, 불안요인, 학습활동이 사회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3%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자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친구지지였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에게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들이 친구관계를 통해 사회자아가 형성되도록 도울 수 있으며, 특히 다문화아동의 경우 학교생활적응 중 교우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중재방안 마련을 위하여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는 구조방정식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뒤 기존의 일반아동과는 차별화된 다문화아동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보길 바란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아동의 학업자아와 사회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일반아동과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다문화아동의 학업자아와 사회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일반적 특성 중에 가족형태, 따돌림 경험, 그리고 자살생각 등이 있었으며, 모든 연구변수들이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영향요인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아동은 학습활동, 사회적부적응, 의사소통, 신뢰감의 요인 순으로 학업자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학업자아를 42.2% 설명하였으며, 사회자아에 대해서는 친구지지, 교우관계, 사회적부적응, 우울 요인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설명력은 46.3%였다. 반면 일반아동은 학습활동, 친구지지, 신뢰감, 사회적부적응, 소외 요인 순으로 학업자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60.6%였으며, 사회자아에 대해서는 친구지지, 교우관계, 불안요인, 그리고 학

습활동의 요인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65.3%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대상자인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업자아와 사회자아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높았으며 두 집단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령기 다문화아동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해서 자아개념 형성을 돕기 위해서는 일반아동과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추후에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대상자들은 일 지역 중소도시의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추후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자아개념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을 위해 발달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평가해볼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Statistics on foreign residents by local governments in 2015 [Internet]. Seoul: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5 [cited 2015 January]. available from: <http://www.mogha.go.kr>
- [2] K. R. Park, J. M. Le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influencing adjustment to school life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Daegu · Gyeongbuk Area-,"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Vol.19, No.6, pp. 981-991, 2010. DOI: <http://dx.doi.org/10.5934/KJHE.2010.19.6.981>
- [3] S. B. Oh, "Kosian on the child's growth and environmental case studies", Korea Education, Vol.32, No.3, pp. 61-83, 2010.
- [4] I. S. Song, "Self-concept" Seoul, hakjisa, 2013.
- [5] B. Kim, Y. S. Choi,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lf-concept and school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attachment types of parents, teacher and peers", Journal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50, No.1, pp. 1-30, 2012. DOI: <http://dx.doi.org/10.6115/khea.2012.50.1.001>
- [6] S. R. Lee, H. W. Park, "Parents' peers' and teachers' influence on the self-concept of Korean-Chinese and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3, No.5, pp. 163-181, 2005.
- [7] W. J. Lee, S. Kim, "Study of multicultural children's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3, pp. 1367-1374,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367>

- [8] M. R. Lee,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with the context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34, No.4, pp. 143-162, 2013.
- [9] H. J. An, "A study on schoo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a Rural c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7, No.4, pp. 383-391, 2008.
- [10] S. H. Y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the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in junior college in some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0, No.3, pp. 376-390, 2001.
- [11] Y. E. Chang, "The effects of attachment and self Concept on career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gender differences, concurrent and lagged effec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8, No.6, pp. 71-82, 2010.  
DOI: <http://dx.doi.org/10.6115/khea.2010.48.6.071>
- [12] Y. J. Nam, S. Lee, "The effect of mother's attachment and daily stress on children's self-concept and depression in multi-ethnic famili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7, No.9, pp. 27-36, 2009.
- [13] B. H. Cho, "Self-concept and career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9, No.2, pp. 235-250, 2010.
- [14] Y. R. Kim, T. E. Kim,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learners' academic/non academic self-concept, school-related attitudes and school related coping", Hongik university Educational Research. No.18, pp. 3-46, 2001.
- [15] S. H. Ryu, "The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children's self-concept",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Vol.14, No.2, pp.115-126, 2001.
- [16] B. A. Bracken, "Examiner's manual for the multidimensional self concept scale" Austin, TX: Pro-Ed, 1992.
- [17] K. M. Sung, "Development of a self-evaluation scale to measure self-concep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21, No.4, pp. 292-302, 2012.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2.21.4.292>
- [18] J. Bowlby,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39, pp. 350-373, 1958.
- [19] G. C. Armsden,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Vol.16, pp. 427-451, 1987.  
DOI: <http://dx.doi.org/10.1007/BF02202939>
- [20] J. Ok,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1998.
- [21] S. I. Shin,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 KGHQ-20 & KGHQ-30", Korean Journal of Society Welfare. Vol.46, pp. 210-235, 2001.
- [22] M. S. Kim, "Development of the Children's Social Support Sca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33, No.4, pp. 37-47, 1995.
- [23] B. S. Min, "The influence of school life adjustment and self-concept on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Hongik University of Korea. 1991.
- [24] K. M. Sung, O. K. Ham, H. J. Lee, "A comparative study on physical self-concept, academic self-concept and depression of obese and over-weight and normal weight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s",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25, No.2, pp. 192-203, 2012.
- [25] Y. H. Kim, H. M. Son, Y. O. Yang, Y. R. Cho, N. Y. Lee, "Relation between internet game addic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student's perception of parent-child attach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Vol.13, No.4, 2007.
- [26] K. M. Sung, H. J. Lee, "Effects of violence victimization on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4, No.4, pp. 407-418, 2013.  
DOI: <http://dx.doi.org/10.12799/jkachn.2013.24.4.407>
- [27] S. H. Moon, H. J. An, "Anger and psychosomatic symptom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14, No.1, pp. 37-47, 2013.
- [28] K. R. Park, J. M. Lee, "The factors of school life adjustmen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9, No. 2, pp. 89-99, 2011.
- [29] Y. H. Jeon, "Relationships of self-concept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19, No.2, pp. 277-293, 2012.
- [30] H. J. Park,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achieve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10, pp. 6168-617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0.6168>

오 은 진(Eun-Jin Oh)

[정회원]



- 2011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5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애착, 간호교육

성 경 미(Kyung Mi Sung)

[정회원]



- 1992년 8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04년 1월 ~ 2005년 12월 : University of Pittsburgh, School of Nursing, Post-Doc. Fellow
- 2008년 9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정신건강, 정신분열병, 자녀양육스트레스